

# “북동 아파트숲 반대...역사·문화 살리는 재생을”

### 주민들, 초고층 재개발 대신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환 촉구 “성당 등 근대문화유산 있고 5·18 현장 보존까지 충분” 주장

광주시 대표 구도심인 광주시 북동의 재개발 정비사업(2020년 8월 6일 광주일보 1면)에 대해 ‘초고층 아파트’ 대신 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고층 고밀도대단지 아파트 숲보다는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연계한 수북형 재개발 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해야 주장이다.

14일 광주시 북동 지역민들로 구성된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과 광주환경연합은 15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북동구역에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에 정구역역을 해제하고, 도시를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광주시 북구가 내놓은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은 광주시 북구 북동 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 6250㎡ 부지에 2956세대가 들어서는 지상 20~45층 규모의 아파트단지 23개동을 짓겠다는 게 골자로, 북구는 지난 2월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 ‘북동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안건을 내고 사업시행사에 의견을 전달했다.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은 ▲정비구역 2개 구역으로 분리해 추진 ▲일반·중심상업지역에 맞는 주상복합시설로 계획하고 통영축, 조망, 경관 등을 고려할 것 ▲공원조성은 정비구역 내 학생, 주민 및 이용객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위치 및 면적으로 조정 ▲주변 재개발사업(임동(유동) 구역, 누문구역 등)에 따라 증가되는 학생수를 예측, 학교(초·중 등)배치계획을 교육청과 협의해 계획 수립 ▲재개발 반대하는 금남로 주변 상가 소유자들의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이다.

사업시행 용역사는 40층 이하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 28건의 사전 자문의결과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5건의 자문의결과 취합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오는 5월께 수정된 계획안이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북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북동 일부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기본계획을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원도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도시 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북동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변으로 누문·임·유동 구역 또한 상업지역 고유기능을 상실

한 채 초고층 고밀도 대단지 아파트 숲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면서 “북동까지 고층·고밀도 아파트 숲을 이룬다면 경관·조망권에 대한 기준은 무너지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중앙대생활권(원도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위상제고 및 도시재생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주시의 ‘2030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북동 금남로5가는 현재도 활발히 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중심상업지역이며 근대문화유산인 북동 성당이 단지안에 있고 수창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정호용이 이끄는 계엄군이 광주 최초진입시 금남로 5가역 건물복에서 시민군과 최초로 대치했던 장소로 보존 가치가 충분한 역사적 장소이다”고 주장했다.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의 한 관계자는 “북동은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북동을 고밀도 아파트 재개발이 아닌 상업지역 활성화 본연의 취지에 맞는 수북형재개발 또는 중심시기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독거어르신에게 드릴 반찬

14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행정복지센터 뒷마당에서 열린 ‘지역사랑 반찬나눔행사’에서 센터직원들과 새마을 부녀회원이 독거노인과 돌봄이웃 30세대에 전달할 소고기 반찬과 열무김치 등을 만들어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

##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 전남교육청, 권역별 진행

전남교육청이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학부모 진로·진학 상담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목포·여수·순천·나주권역 진학지원센터별로 특정 요일을 정해 대입지원관이 상주하면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대입지원관과 함께하는 학부모 상담은 전남 진로진학지원포털을 통해 사전신청을 하면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도교육청 대입지원관 및 대학 입학사정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70일간 미얀마 국민 700명이 죽었다”

### 광주 시민단체, 쿠데타 세력 살인 만행 규탄...국제사회 관심 촉구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미얀마 시민을 집단 학살하는 쿠데타 세력을 규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오월단체와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얀마 광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살인 만행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고 주장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위원회(AAPP)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가 70일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10 일까지의 확인된 사망자가 701명이며, 이중 어린

이 사망자는 최소 4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의 총격에 의해 2월 19 일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2월 28일 18명, 3월 3일 38명, 3월 14일 74명, 3월 27일 114명, 4월 9일 83 명 등 사망자가 700명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하루에 10명 꼴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미얀마인들이 사망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의 바고에서는 지난 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 82명이 죽었으며, 목격자들은 “마치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같았다”, “그들은 사람의 그림자 만 보이던 총을 쏘다”며 당시의 긴박하고 잔혹한 상

황을 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군은 사망자의 시신을 되찾으려는 가족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어 반인륜적 범행이 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에 광주연대는 “미얀마의 비극적인 하루하루는 날날이 기록되어 언젠가는 가해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증거가 될 것이며,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잔인한 학살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면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은 즉각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유엔과 국제사회는 집단학살과 반인륜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미얀마의 현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더 이상의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코로나 피해농가에 30만원 광주 남구 30일까지 접수

광주시 남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바우처 사업을 진행한다.

14일 남구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제공을 위한 신청 접수가 오는 30일까지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람 가운데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사람이다.

신청서 접수는 경작 농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필지 기준) 소재지 관할 등에 있는 농업과 축협, 농협은행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며, 농협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포인트 30만원이 제공되며, 해당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포인트 30만 원을 지급할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며, 이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소규모 농가 한시적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농가지원 바우처 콜센터(☎ 1670-2830)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중·고생 중국어 말하기대회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는 고창북고등학교 공자학당과 공동으로 ‘제4회 전라도전년 중국어 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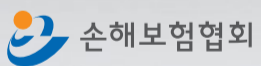
“중국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참가 희망자는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홈페이지(<https://gongja.honam.ac.kr/>), 고창북고등학교 홈페이지(<https://school.jbedu.kr/gochangbuk-h>)를 참조해 다음달 7일까지 예선 참가신청서와 발표 원고(중국어·한국어 각 1부), 발표 촬영 영상 파일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선 심사발표는 5월 14일 개별 통보되며 6월 5일 고창북고등학교 국제관에서 본선이 실시된다.

참가자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중화권 국가 체류 실적 1년 이하 중·고등학생이며, 전년도 본대회 금상 이상 수상자와 타 대회 입상내용이 있는 원고내용을 사용하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다. 중·고등부 부문별 대상과 금상, 동상 등이 수여되며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기념품이 주어진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